

8월 Market Index			
코스피	2594.36	코스닥	778.24
	(-16.02)		(-2.77)
금리 (미국 9년)	2.932	환율 (원-달러)	1346.00
	(-0.028)		(-0.70)

흔들리는 전자업계 투톱, 재도약 기회 만든다

## 삼성 경쟁력 회복·조직쇄신 LG 구독·D2C 등 사업 다변화

(소비자 직접 판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고전 전영현 부회장, 이례적 사과 전 사업·조직문화 쇄신 약속

LG전자, 해상운임 폭등 영향 전년 대비 영업이익 20% 하락 B2B·온라인사업 확대 추진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나란히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하며 업계 위기론이 급부상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수요 부족 등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사업이 고전한 영향이 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영현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까지 쇄신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해상운임 폭등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20%나 떨어졌다. 이에 LG전자는 주력인 B2B 사업은 물론 지역별 제품을 다변화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삼성전자, 전 사업 쇄신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인 10조400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이번 실적 악화는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경쟁력 부족이 주

요원인으로 꼽힌다. 증권가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 6조4510억원에서 3분기 4조원대로 내려앉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진한 실적에 대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키로 한 일정이 지연되면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과 파운드리도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 쇄신을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초심을 찾아 혁신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메모리사업부의 경쟁력을 되살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연구소의 메모리 개발 인력 일부를 사업부로 전치 배치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수뇌부를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최근 위기에는 ‘리더십 부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재계는 내다봤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북한, 남북 육로 완전 단절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강 독개다리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철교 교각과 임진강 철교를 살펴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부터 남한과 연결된 도로·철길을 단절하고 방어 구조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는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0월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

“최근 삼성의 위기는 단기간에 실적 개선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인사 때 이재용 회장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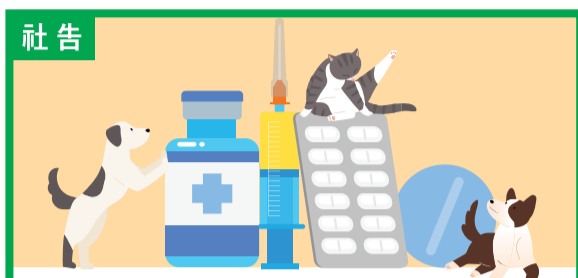
### ◆온라인 사업 등 사업 다변화

LG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운임 등

이 폭등하면서 어닝쇼크를 맞았다. 전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22조1769억원, 영업이익 7511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하락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이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하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韓 ‘WGBI’ 편입 성공... 글로벌 자금 70조 유입 기대

(세계국채지수)

FTSE 러셀 WGBI에 韓 추가 예정 1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1월 부터

한국이 세계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된 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과로, 국내 시장에 글로벌 자금 유입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

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FTSE 러셀에 따르면 이번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 됐다. 편입 시점은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친 후인 ‘내년 11월’부터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글로벌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

수(GBI-EM)와 함께 ‘글로벌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WGBI 추종 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GBI 편입 후보국)’ 지위에 오르며 WGBI 편입을 위한 첫 발을 디뎠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이상·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검토해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정 때부터 정량적 기준인 국제 발행 규모와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 부문에서 기준 미달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에 정부·금융당국은 그동안 국제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지수 편입에 주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뉴스타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한중 각급 대화채널 복원 중... 문제 발생시 즉각 대화” (사진 뉴스)  
▲ 한미일 북핵대표 “북 최고인민회의 평가 공유”

▲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접수... 8일부터 조사 착수  
▲ 김용현, 방첩사령관 태도 지적에 “군복 입었다고 할 말 못하면 병X”



▲ 민주당, 한글날 맞아 “윤, 김 여사 국정혼란 다잡고 공사 구분하길”  
▲ ‘이중투표 권유’ 기소된 신정훈 의원 “지역민에게 송구” (사진 뉴스)

# 현대차그룹, 新에너지·혁신제조 등 싱가포르와 협력 확대

난양이공대학과 신에너지 업무협약  
수소에너지 등 개발 공동연구 나서  
과학기술청과 '3자 기업연구소' 설립  
AI·로보틱스 등 혁신 제조기술 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 최고 수준의 인재와 신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혁신제조 분야에선 기업과 대학교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까지 참여하는 공동 연구소를 세운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가 문을 연 이후,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를 글로벌 연구·개발(R&D)의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난양이공대학(NTU)과 신에너지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난양이공대는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가 발표한 전 세계 공과대학 순위 14위(아시아 2위)에 오른 연구중심 대학이다.

양측은 수소 에너지, 차세대 발전사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왼쪽 첫째), 람킨웅 난양이공대 부총장(오른쪽 둘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셋째) 등이 신에너지 부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싱가포르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실시한다. 자원순환형 수소를 통한 발전, 수소전기차를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자원순환형 수소는 음식물 쓰레기 또는 플라스틱에서 생산한 친환경적 수소 에너지를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에너지는 수소 전기차 충전에도 활용할 수 있어 밸류체인 구축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현대차는 내년부터 충북 청주에서 하루 500

킬로그램(kg)의 자원순환형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고급 인재와의 공동 연구로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싱가포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발전 전력의 94%를 천연가스에 의존한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4%에 불과하다. 2035년까지 천연가스 비중을 50%로 낮

춘다는 게 싱가포르 정부의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신에너지 분야 협력에 이어 난양이공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함께 '3자 기업 연구소' 설립 조인식도 체결했다. 3자 기업 연구소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혁신제조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3자 기업연구소의 또다른 한 축인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조직으로 연구기관 18개, 연구진 6000명을 두고 있다.

박현성 HMGICS 상무는 "한국 기업

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정부-대학교-기업' 3자 기업 연구소를 설립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제조 분야에서 싱가포르 인재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 상반기 싱가포르 차량 판매량이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작년 11월 현지에 문을 연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에 따르면 상반기 현지에 등록된 현대차·기아 신차는 1557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56대)의 두 배다. 현대차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333대에서 941대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싱가포르는 차를 구입하기 까다로운 나라로 꼽힌다. 매달 두 번 열리는 경매를 통해 차량취득권리증(COE)을 구입해야 신차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싱가포르 시장 공략의 선봉에 친환경차를 세웠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등록세의 최대 45%를 환급해주는 점을 감안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 동해 탐사시추, 지진유발 가능성 매우 낮아

석유공, 안정성 검토 전문가 토론회  
"전통 석유시추 유발지진 사례 전무"

정부가 석유·가스 매장량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동해 탐사시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탐사시추가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8일 포항시청에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가 과거 동해지역에서 실시한 총 32공에 대해 시추공별 자료와 지진 발생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시추 작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해외의 경우 비전통(셰일)시추를 제외하고 과거 124년간 이뤄진 전통 석유시추 818만 공(연평균 6.6만공) 가운데 유발지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전통 석유시추에 의한 유발지진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아울러 "동해 시추 예정지 해저단층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시추 예정 지역에서 유발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전문가 및 포항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탐사 시추를 수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LG전자 "100조 원 전자장비 수주 순조"

>> 1면 '흔들리는 전자업계...'서 계속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 수익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LG전자는 캐시카우인 가전과 B2B사업은 물론 지역별 제품과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LG전자는 가전 외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구독, 소비자직접 판매(D2C) 등은 물론 플랫폼 기반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하며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장(VS)사업도 매출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은 100조원 수준의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제9회 파주개성인삼 먹고 활기찬 삶 蒸

# 파주개성인삼 축제

2024 | 10.19(토)~20(일)  
파주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원

반도체기업 'HBM' 핵심 경쟁력 부상

**삼성** HBM4시대 기술혁신 주력 **SK** 글로벌 AI 네트워크 확장

HBM 역량에 따라 실적 좌지우지

삼성전자 기술개발 통해 리더십 확보  
SK하이닉스 연내 HBM3E 12단 공급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례적인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기술을 선도하며 긍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6조75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 개발 열풍 이후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중심이었던 반도체 시장이 AI 메모리 시장으로 선회했다. 업계는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택이 운명을 갈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HBM 역량 강화

삼성전자는 향후 HBM 시장에서의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교체 주기의 장기화와 PC 판매 부진으로 기존 주력 상품인 범용 D램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HBM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역전을 노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D램을 접착하는 공법이 변화하면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 제작 시 'TC-NCF' 방식을 사용해 칩 사이에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넣고 녹여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MR-MUF' 방식으로 칩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한 번에 주입한 뒤 굳혀 칩 간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의 차이가 향후 기술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AI 생태계 주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사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SK하이닉스는 올해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서 뛰겠다."(최태원 SK그룹 회장, 9월 글로벌 경영 환경 점검 회의)

'AI 생태계'에서 SK하이닉스는 가장 중요한 축을 끌고 간다. 최 회장은 올해 미국, 대만을 연이어 방문하며 AI 및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SK그룹은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AI에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육성 중이다. 오는 10일 창립 41주년을 맞는 SK하이닉스는 AI 시스템 구현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AI 반도체용 메모리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 구축에 최적화된 고용량 DDR5 모듈,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AI용 메모리 시장을 선도할 태세다.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AI 메모리로 선회한 만큼 SK하이닉스는 올해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지난 3월 HBM3E 8단 제품을 처음 납품한 데 이어 최근 12단 양산에 돌입해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D램과 달리 HBM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적다. 여기에 더해 D램 대비 이익률 또한 3~5배 높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정부,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만든다

EU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공고 시행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DD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원료·부품 정보, 수리용 이성, 탄소발자국(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표시한 것), 재생원료 함량 등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에

게 공개하는 내용의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의도치 않게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DP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기존에 중앙에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통로 역할(중계)만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취합에 있어서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데이터 공유·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의 탄소 데

이터 확보·관리가 힘들었고, 협력업체의 경우 규제 정보 이해 부족과 탄소 관리체계 미비, 복수의 원청업체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중복실사 부담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활용·보완 중심의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 과제는 '2024년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 25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의 후속조치다.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과기정통부의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며, 데이터 스페이스 선진 사례·기술을 조사·분석해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에서 진행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에 열린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연구소(RGB 연구소)' 개관식에서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정현울 익산시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왼쪽 다섯번째부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 개관 (레드-그린 바이오)

지구를 위한 바이오 융합 기술 개발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미래의 바이오 기술을 고민하는 연구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문을 열었다.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에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연구소(RGB 연구소)' 개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RGB 연구소는 인간의 질병 극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레드 바이오'와 식물, 동물은 물론 지구 전체 생태계를 위한 '그린 바이오'를 아우르는 사람과 동물, 지구를 위한 바이오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다.

우선, RGB연구소는 사람을 위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중심으로 그린 바이오를 융합할 방침이다.

동물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신소재 평가 플랫폼을 개발해 동물용 의약품 등에 적용하고 반려동물 사업을 확장한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인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동물로 확장, 반려동물용 재생치료제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동물 오가노이드 기반 감염병 평가 모델을 개발해 동물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가노이드 기술 이외에도 레드-그린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람이 먹어도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도 없는 고기를 생산하거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사료 개발 등이 목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융합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며 "2028년까지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원광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RGB연구소 개관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내년 오가노이드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도 자체 바이오 분야 R&D 예산을 만들고 확대해 기업들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통령실 "국제사회, 건전 재정기조 높은 평가"

>> 1면 '韓, WGBI 편입...'서 계속

대표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국제 투자를 비교해왔고, 외국인 투자자등록제(IRC)도 폐지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 거래시장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한국국채가 WGBI에 편입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WGBI 편입으로 약 500억 달러(70조원)의 국

채자금이 유입되면 0.2~0.6%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번 WGBI 편입이 국내 채권 시장에 유동성을 더해 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국내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도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WGBI 편입 성공과 관련해 "이번 결과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을 비롯한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WGBI 편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권·외환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 성과가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임종룡, '부당대출' 사전 인지 여부 쟁점... 첫 공식 해명 기회

〈우리금융그룹 회장〉

## 금융위 국정감사 출석 선언

손 전 회장 관련 350억 부당 의혹 전 계열사로 확대... 책임론 대두 금감원, 계열사 임원 개입 지적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다. 부당대출 사태 이후 임종룡 회장의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 임 회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 부문 국감을 시작한다.

이번 금융위 국감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관심이 높은 인물은 임종룡 회장이다.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350억 원 친인척 부당대출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

##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 2023년
- 7월 우리은행 임도 본부장 취임 여신 부실 대상 통보
- 9월 우리은행 해당 여신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사실 인지
- 2024년
- 1월 우리은행 해당 건 자체 감사 실시
- 4월 우리은행 임도 본부장 면직
- 5월 금감원 우리은행에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건 사실관계 확인 요청
- 6월 금감원 우리은행 현장 감사 실시
- 8월 9일 금감원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350억 원 부당 대출 사실 보도자료 배포  
우리은행 금감원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 경찰 고소
- 12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조병규 우리은행장 부조리 과거거음증 인식
- 13일 우리은행 전임 회장 친인척 대출은 금융사고 아니기 때문에 보고 대상 아니라고 해명
- 20일 금감원장 "우리은행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
- 22일 금감원 우리은행 추가 현장 감사 실시
- 23일 우리은행 금융사고 공식
- 25일 이복현 금감원장 "경영진 누군가는 책임져야"
- 28일 임 회장 "수사 결과에 따라 저와 조병규 은행장 조치 따를 것"
- 30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손 전 회장 친인척에 7억 원 대출 사실 확인
- 9월 7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구속
- 10월 7일 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확인



드러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불거진 상황이다.

또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리스크는 현재 우리금융전계열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에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장 등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내줬다. B법인의 신용등급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해줬고, 대출금 일부 유용에도 어떤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당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부당대출 사태가 우리금융 계열사로 확대 되면서 '임 회장의 입'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사태로 공식적인 사과 이외에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송구스럽고,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 인지 및 개입 여부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임 회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거취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부 통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권 경영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이야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질의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최근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일을 토대로 질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로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 회장은 국감 일정을 위해 해외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라오산 신한금융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회장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 약 350억원을 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 결과

# 배달앱 vs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 갈등 지속... 상생안 후퇴 논란

국감서, 배민·쿠팡이츠 대표 출석 입점단체, 수수료 투명성 등 요구 상생협의체, 배민측 상생안 거부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이 계속되는 배달 앱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상생협의체 또한 입점단체가 배달의민족 측이 제시한 상생안을 거부하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9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열린 국감에 피터안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 등 배달 앱 대표들이 참석했다. 같은 날 배달 앱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6차 회의도 열렸다.

국감과 상생협의체 종료 후 입점단체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무의미한 국감과 오히려 후퇴한 안건이 상생이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배달플랫폼 관련 질문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뉴시스

며 제시된 한심한 상황"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국감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결 방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같은 시각 열린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 앱의 생존만을 염두에 둔 이야기가 오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오영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의 배달 앱 갑질 행위의 묵인·방조 논란에 대해 "중기부가 법적 여러 권한을

가지 못한 만큼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회의 진행 중인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10월 말까지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중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배달 앱 수수료와 플랫폼 갑질을 질타했으나 증인 출석한 배달 앱 대표들로부터는 실속 없는 면피성 답변만 나왔다. 의원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별다른 협의 없이 입점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약관을 수정하고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입점 업체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초창기 배달비 1000원을 내걸고 판매자를 끌어들이던 뒤 최근 가맹점 수수료를 9.8%까지 올렸다"며 "최근에는 멤버십 서비스로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난 다음 가맹점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 등 플랫폼 정책을 따르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터안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피터안 대표는 '울트라볼 깃발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상품이 입점 업체 간 출혈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검토를 해왔다"며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빈번한 이용약관 변경 등에 대한 문제 또한 "약관 변경은 때때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약관은 내부 법률팀의 자문을 통해서 한국 법이나 여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을 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배달 앱 대표들이 상생협의체를 통한 해결에 진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배달플랫폼-입점단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는 오히려 "후퇴한 상생안을 제시했다"며 파행했다.

반면 협의체에 참여한 입점단체는 4가지 요구사항을 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韓, 기대수명 세계 3위... 의료·생활 수준 향상 '덕'

UN 집계서 남녀 합산 84.33세 예측 韓 성별격차는 커... 남 14위·여 3위

전 세계 210국 국민 기대수명 비교에서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남자는 14위에 머물렀으나 여자가 3위를 차지했고, 남녀 합산에서도 3위에 자리했다.

9일 국제연합(UN) 집계에 따르면 2023년에 태어난 한국 남녀 출생아는

평균 84.33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홍콩(85.51세)이 1위, 일본(84.71세)이 2위에 올랐다.

UN 기준 2022년도 기대수명(한국 82.73세, 11위)에 비해 순위가 무려 8계단이나 뛰었다. 지난 2019년 5위까지 올라갔으나 2022년에 크게 밀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서방 주요국에 비해 기대수명 순위에서 우위를 점했다. 지난해 프랑스가 12위(83.33세), 독일이 39위

(81.38세), 영국이 40위(81.30세), 미국이 55위(79.30세) 등이다. 중국은 65위(77.95세), 북한은 73.64세로 114위에 그쳤다. 북한은 그나마 지난 5년간 세계 평균선(2023년 73.17세)만큼은 웃도는 수준을 보여 왔다.

이 밖에 브라질 95위(75.85세), 러시아 119위(73.15세), 인도 131위(72.00세) 등으로 집계됐다. 또 싱가포르 8위(83.74세)인 반면, 인도네시아

는 142위(71.15세)로 처지는 등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성별 구분으로, 한국 남성은 지난해 81.19세로 210개국 중 남녀 종합에 크게 못 미치는 14위였다. 홍콩과 일본을 비롯해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 밀렸다. 이에 반해 한국 여성은 87.16세로, 홍콩·일본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기대수명에서 24위에 그친 바 있다. 일본은 같은 해 1위였다. 이후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은 여성 기대수명 증가 폭에서 서방 주요국을 압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등을 제친 데 이어 장수국가로 평가 받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여성까지 따라잡았다. 20년간 20여 개국을 앞질렀고 일본에 이어 38개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라 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http://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명태균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혀”... 공천개입 의혹 확산

〈김건희 여사 총선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 씨, 경남서 정치 브로커·컨설턴트 尹에 3.6억 상당 여론조사 제공 의혹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받아 대통령실 “특별한 관계 아니었다” 한동훈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해야” 野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명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처럼 윤석열 정부의 음지의 권력자로 비치면서 야당에 공격거리만 던져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 씨는 경남 지역에서 정치 브로커이자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유튜브 채널 ‘스픽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출연해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었

던 이유는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스타파’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명 씨의 육성을 담은 발언이 보도되면서 후폭풍이 커졌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에서 “(인론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

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

의 발언 등으로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명 씨 의혹이 터져나오자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명씨와 김 여사가 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 여사를 통해서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며 “그러니까 명씨가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법’으로 尹 거부권 우회 도모

제출 앞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서 與 뒤편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 발의 尹 임명 거부 시 ‘탄핵 사유’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김 여사 특검’의 8가지 수사대상 중에서도 이치모터스 주가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시스

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기간이 짧고 조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나머지 의혹을 다룰 개별 특검과 병

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 뒤편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이 중 4명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미 제정됐

다. 별도 특검법 발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동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보유할 의석수는 170석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설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다만 대통령의 상설특검 임명 거부부는 ‘탄핵 사유’라는 의견이 있다. 즉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할 경우에는 ‘탄핵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상설특검법상(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임명) 안 하면 법률위반”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 尹 “자유통일 한반도, 인태지역 경제발전·번영 추동력 제공”

싱가포르 렉처 강연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방문 이틀 째인 9일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는 북한 주민들에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은 물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초청받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들 연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80년에 창설,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첫 강연을 했다. 우리 정상은 싱가포르 렉처에서 강연한 경우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중추국 대한민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역할과,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됐을 경우의 기여에 대해 ‘자유·평화·번영’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했는데,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한 것이 이자리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인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유통일 한반도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통일 한반도가 역내뿐 아니라 세계에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 韓-李, 보궐선거 일주일 앞두고 부산 출격

韓 “공정의 힘, 부산의 힘 될 것” 李 “똑같은 사람 쓰면 총직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부산을 찾아 각각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후보를 내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 금정구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를 위한 인물은 윤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 참석한 윤 후보를 언급하며 “윤 후보는 이곳에서 학교

를 다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선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윤 후보이고 바로 윤 후보를 국민의 힘이 뒷받침 하겠다”면서 “공정의 힘, 부산의 힘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부산시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열린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찍어서 더 나아진 금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김 후보는 소개하면서 “제일 어려운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제가 뒷골목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미리 구민 여러분을 만나뵈다. 뭐라고 했냐면, 좀 바빠서 한번 써보라. 똑같은 사람을 자꾸 쓰면 주권자도 주인에게 총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 Ria's BURGER ART MUSEUM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33  
2024.10.03-10.20

LOTTERIA™

# 보험업계, 사망률 높은 ‘암·심장·뇌혈관’ 보장강화 나선다

암·심장질환 사망원인 1, 2위  
KDB생명 ‘암중신보험’ 출시  
암 확정시 사망보험금 선지급  
흥국화재, 3대질병 보장보험  
3대질병 특약시 경증질환 보장

보험사가 ‘3대 질병(암·심장·뇌혈관)’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 원인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심장, 뇌혈관 질환이 상위 사망 원인으로 집계되고 있어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대 질병은 꾸준히 사망률이 높은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암, 심장 질환은 지속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뇌혈관 질환은 지난해 순위가 상승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암으로 인한 사망은 8만5271명(24.2%)으로 전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

상위 사망 원인 가운데 심장 질환은 3만3147명(9.4%)으로 2위를 기록했다. 뇌혈관 질환은 2만4194명(6.9%)으로 전년 대비 한단계 순위가 상승한 4위로 집계됐다.

3대 질병이 상위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험사들은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속속 선보이



첫 지피티가 생성한 보험사 3대 질병 보장 강화 이미지.

/첫 지피티 생성 이미지

고 있다.

KDB생명은 이달 암중신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유 발생 시(암 혹은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조건은 ▲암보장형의 경우 암 진단 확정 시 ▲3대질병 보장형의 경우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유 발생 시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한다.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면제는 물론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는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으로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과 동시에 사망보험금 선지급, 전체 보험료 면제, KDB케어서비스 제공 등으로 질병 진단 이후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도 이달 3대질병 보장보험을 선보였다. 3대 질병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후 당뇨·고혈압·부정맥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병을 앓게 되면 진단비 일부를 선지급한다.

‘암진단비’ 담보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또는 5대 양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단비 보장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2대질병(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도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2대 질병 진단비 보장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암·뇌·심 3대 질병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경증질환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암 따로, 뇌·심장 따로,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L생명은 지난달 암 또는 3대 질병 진단 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체증형으로 설계해 사망보험금은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돼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증가한다. 암이나 3대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또한 암, 3대 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보험료환급특약 가입 시 납입한 주계약 및 보험료환급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ABL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기능을 탑재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카드 News

### KB국민카드 KB페이 1300만명 돌파 BMW 등 경품추첨 행사

KB국민카드는 KB페이 가입 고객 1300만명 돌파를 기념해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달 10일까지 추첨을 통해 BMW미니 쿠페를 제공한다. 신규 가입 고객은 추첨 기회를 3회 추가로 제공하며 최초 자산 연동 고객에게는 1회의 추가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31일까지 ‘총 1억3000만원 상당! 팽 없는 용돈 받기’ 이벤트를 운영한다. 1인 1회에 한해 최대 5만 포인트 리를 100% 증정한다. 이어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노티드 1만원 상품권을 준다. 세부 행사 내용은 KB페이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삼성카드 테슬라 모델Y 시리즈 구매고객에 금리 할인

삼성카드는 테슬라와 함께, ‘모델 Y’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금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델 Y RWD’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부개월 및 할부원금에 따라 무이자 또는 연 2.3%포인트(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같은 방법으로 ‘모델 Y 롱레인지’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연 3.3%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모델 Y 퍼포먼스’ 또는 ‘모델 3·S·X’ 차량을 구매하면 할부개월에 따라 연 4.1~4.4%p를 낮춘 금리를 적용한다. 행사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등 10월 문화이벤트 진행

현대카드는 10월을 맞아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는 키이로와의 새터데이 팝업(Saturday Pop-up)을 진행한다. 튀김 요리에 주류 페어링을 곁들인 정찬을 오는 12일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맛볼 수 있다.

언더스테이지에서는 ‘현대카드 큐레이티드 95 한로·윤마치·QWER’이 열린다. 특히 QWER은 올해 결번드 신드롬을 일으킨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의 평일 소공연을 선보인다. 소규모 극장에서 음악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DIVE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경기도 최고 분양가’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국평 58대 1

전용 84㎡ 분양가 22억에도  
당해 1순위서 청약 모두 마감

과천은 물론 경기도에서 사상 최고 분양가로 이목이 쏠린 ‘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이 과천에서만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2억원 안팎에 달했지만 과천 당해에서 대부분 소화되면서 서울 등 기타 1순위에는 아예 기회가 오지 않았다.

9일 청약홈에 따르면 프레스티어자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8대 1로 집계됐다. 일반청약 172세대 모집에 총 1만93개의 통장이 접수됐다.

특히 과천 내에서만 2589개의 청약



프레스티어자이 견본주택. /안상미 기자

통장이 신청하면서 당해 경쟁률은 15대 1이다. 주택형별로 21개 타입 가운데 84㎡H만 예비당첨자 한 명이 부족해 기타지역까지 넘어갔을 뿐 사실상 당해 1순위에서 청약이 모두 마감됐다.

앞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15세대 모집에 총 2722명이 접수해 경쟁률은 23대 1에 달했다.

프레스티어자이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 4단지지를 재건축해서 들어선다.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으로 총 1445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으로 나온 물량은 287가구다.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걸어서 3분 정도면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 갈 수 있어 재건축만 되면 과천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6275만원으로 과천 사상 최고가다.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최근 오른 주변 신축과 시세가 비슷

한 수준이다.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59㎡ 17억2670만원, 84㎡ 24억1600만원이다. 최상층 복층을 제외하면 국평인 84㎡의 분양가가 22억원 안팎이다. 비규제 지역이라 실거주의무나 재당첨 제한은 없다.

같은 날 진행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텔루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47대 1로 집계됐다. 35세대 모집에 총 1만6604명이 접수했다.

디에이치 대치 에텔루이는 강남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만 되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소위 ‘로또청약’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시중은행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지급… 1인당 평균 4억

14곳 희망퇴직자수 1만6236명  
씨티銀 희망퇴직금 1.3조 ‘최고’

2019년 이후 5년간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은행원이 1만6236명에게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희망퇴직금은 1인당 평균 4억원으로, 총 6조5000억원에 달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의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는 1만6236명이며, 지

급된 퇴직금은 총 6조542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동안의 퇴직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 직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할 경우 지급하는 돈으로 법정 퇴직금을 제외한 특별퇴직금, 자녀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을 포함한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의 희망

퇴직금이 1조27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9월 소매금융 철수를 확정하면서 한꺼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영향이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은행중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7519만원이다.

신한은행은 1954명의 희망퇴직자에게 672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

고,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각각 3억4429만원, 3억4709만원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수는 작았지만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시중은행과 비슷했다.

부산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희망퇴직을 받아 총 381명에게 1573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1296만원이다. I M뱅크(구대구은행)도 326명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15123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6391만원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LG에너지솔루션-벤츠, 수소원대 계약 체결

# 북미시장 차세대 배터리 공급 '물꼬'

10년간 50.5GWh 규모 공급  
구체적인 계약금액 미확정  
고전압 미드니켈 등 제품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체결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8일 벤츠와 총 50.5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오는 2028년부터 2038년까지 북미 및 기타 지역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50GWh는 주행거리 400km 이상의 전기차를 연간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진 않았으나 대규모 공급 계약임을 고려했을 때 수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계약을 통해 벤츠에 공급하는 제품이 원통형 46시리즈(지름 46mm)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6시리즈는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높이고 주행거리는 16% 늘릴 수 있다. 대량 생산에도 적합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전기차 판매가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단독 투자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건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설하고 있다. 연산 36GWh 규모 공장으로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벤츠 계열사에 납품할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차 기업에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벤츠는 과거에도 협력한 경험이 있다.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C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의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회사는 기업 비전 발표회에서 46시리즈를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벤츠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예상 계

약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 및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는 ESS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견고한 매출 구조를 마련하는 데도 집중할 전망이다. LFP·고전압 미드니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2028년까지 매출을 두 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지난 7월 완성차 업체 르노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포스코, 전력망·ESG 등 고객 성장방안 모색

### 2024 지속가능 소재 포럼

삼성전자, 현대 등 500개 고객사 참여

포스코가 지난 7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4 지속가능 소재 포럼'을 개최했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올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소재, 고객과 함께 하는 혁신'을 주제로 현대자동차, 토요타, 현대,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동차, 조선, 에너지, 건설, 가전 등 주요 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500여 개 고객사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격년으로 지속가능소재 포럼을 개최해 올해로 7회차를 맞았다.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포스코그룹은 고객 여러분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성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전력망·ESG(환경·사회·지배구조)·인공지능(AI) 등 테마로 16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기조 강연은



포스코 이시우 대표이사 사장이 10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지속가능 소재 포럼 개최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스 도슨이 나섰다. 손일 연세대 교수와 정인호 서울대 교수는 '저탄소 철강,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다니엘 리 미국 코넬대 교수는 'AI 기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포항과 광양제철소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객사 관계자들은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실제 구매 제품을 둘러봤다.

/양성운 기자 ysw@

## HD현대중공업, 글로벌 잠수함 시장 공략

폴란드서 '프로모션 데이' 개최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2300톤급 잠수함(모델명: HDS-2300)을 앞세워 폴란드 등 세계 잠수함 시장 공략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은 8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해군과 조선산업을 위한 한·폴란드 협력의 새 시대'를 주제로 '프로모션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폴란드 의회 안제이 그지브 국방위원장, 발데마르 스크르지프차크 에너지위원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2300톤급 수출용 잠수함과 토털 솔루션을 선보이고, 방산 및 에너지 분야에서 폴란드와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글로벌 잠수함 생산업체인 영

국의 발콧 인터내셔널과 한국의 LIG넥스원이 행사에 함께 참가, HD현대중공업이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에 제안 예정인 잠수함에 탑재되는 주요 시스템과 솔루션을 직접 소개했다.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 그단스크의 '레몬토와 조선소'와 공동 MRO(유지·보수·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지 에너지 기업 'PGH2'와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주원호 부사장은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시장에 최고 성능의 잠수함을 공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오늘 행사가 HD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강점을 알리는 것을 넘어 K-방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항공업계, 플로깅 등 친환경 활동 강화 탈탄소시대 '지속가능한 비행' 새 도약

배기가스 저감 신형 항공기 도입  
폐기물 재활용 통해 가방 등 제작

항공업계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온난화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운송이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2~3%를 차지한다. 이에 항공업계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KLM 네덜란드항공은 글로벌 항공기 엔진 개발사 제로에이비와 함께 수소전기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제로에이비가 개발한 엔진 'ZA2000'은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모터 구동에 사용하는데,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9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형 기종을 도입하기도 한다.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인 A321 neo는 연료를 16%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도 50% 줄일 수 있는 항공기다.

또한 항공사에선 기체 브레이크를 보다 가벼운 카본 소재로 교체하기도



대한항공 퇴역 항공기로 제작된 네임택·볼마커. /대한항공

한다. 교체 시 약 320kg의 기체 무게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편당 3.64kg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독일의 업사이클링 회사인 'B2L'과 협업체 사용 연한이 다된 구명조끼를 가방으로 만들었다.

국적사인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항공 폐기물 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구명조끼를 이용해 ▲여권지갑 ▲여행용 가방 ▲미니 파우치 등을 만든 바 있다.

대한항공도 자사 퇴역 항공기의 동체 일부를 잘라 골프 볼마커를 만들거나 네임택을 만들어 공식 굿즈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보잉 777-200

ER 기체를 업사이클링한 네임택 굿즈는 준비한 4000개가 출시 하루만에 모두 판매된 바 있다.

진에어는 제주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페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 4톤 분량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티웨이항공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2021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은 사내 '플로깅' 문화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플로깅은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문화로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이다.

또한 산림 보호 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3년부터 산림청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개도국 산림보전 지원 ▲기내지 통한 산림복지시설 홍보 ▲산림보호·산불조심 캠페인 진행 등을 추진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의 ESG 경영은 단순한 업계 트렌드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비행을 위해 실천"이라면서 "제트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지속가능한 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 HD현대, 선박용 대용량 저압 드라이브 개발

조석 대표 "선박 자동화 시장 선도"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선박용 대용량 저압 드라이브(VFD) 개발에 성공했다. 이로써 HD현대는 선박 전동화 핵심 장비인 축 발전 시스템의 모든 부품을 자체 기술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HD현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울산 HD현대일렉트릭 회전기 공장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플라스코 3사가 공동 개발한 3메가볼트암페어(MVA)급 선박용 VFD 시연회를 개최했다.

선박용 VFD는 발전기 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 전력 생산 효율을 극

대화하는 장비로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는 선박 내 '축 발전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HD현대가 개발한 선박용 VFD는 '그리드 포밍'을 적용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별도의 위치 및 속도 센서 없이도 모터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졌다.

조석 대표는 "이번 성과는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선박 전동화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숏폼’ 인기, 토종플랫폼 차별화 지역성·맞춤형 콘텐츠로 승부수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시장 선두 유튜브 등 1인당 월평균 52시간 사용  
네이버, 빠른 숏폼 소비 전략 ‘클립탭’ 카카오킴, 큐레이션 기반 맞춤형 서비스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킴 등 국내 토종 플랫폼들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숏폼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9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은 숏폼 콘텐츠들 주력으로 삼은 글로벌 플랫폼들은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숏폼 앱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52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 OTT 앱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인 7시간 17분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유튜브는 월평균 사용시간이 41시간 56분으로 숏폼과 OTT 앱을 통틀어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틱톡 17시간 16분, 인스타그램 15시간 56분, 넷플릭스 6시간 17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글로벌 플랫폼의 이러한 선두 요인으로 이들이 ‘숏폼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는 모두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을 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글로벌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킴 등 국내 토종 플랫폼들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숏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용해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들도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 숏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클립탭’을 신설하며 숏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클립탭은 짧고 강렬한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다양한 숏폼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자사 포털 ‘다음’에 ‘숏폼’ 탭을 새롭게 추가하며 숏폼 콘텐츠 시장에 발을 들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숏폼 탭과 ‘카카오뷰’를 결합해 사용자가 더 직관적이고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뷰는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 관계자는 “숏폼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카카오 역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숏폼 관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해 11월 지역 기반 숏폼 콘텐츠인 ‘당근 스토리’를 선보였다. 당근 스토리는 사용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생활 정보를 짧은 영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 스토리는 이웃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당근 스토리는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를 짧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주한미국대사,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 방문

### “배터리 음극재 공급망 안정화 필요”

유병욱 사장 “美 정부 일관된 정책 건의” 골드버그 “불공정 무역없는 공급망 중요”

자국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배터리 공급망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했다.

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일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찾았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미국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천연흑연 음극재 대비 배터리 수명은 늘리고, 충전시간은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폴타르를 가공하여 만든 침상코크스를 원료로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중으로, 천연흑연 음극재와 달리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 가능해 공급망 안정화



지난 7일 (왼쪽)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가운데) 포스코퓨처엠 유병욱 사장이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서 음극재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에 유리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 음극재를 포함해 총 8만여톤의 음극재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경쟁국에서 전략적으로 음극재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가동률 및 수익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욱 사장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정부에 일관된 정책 추진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전자, 고객경험 중심 체험공간 확대

체험공간 ‘리프레시 룸’ 선보여

LG전자가 고객이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낸다. 차별화된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고객 피드백을 수렴해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인 ‘리프레시 룸(Refresh Room)’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리프레시 룸’은 고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가전제품을 고를 때만큼 여유 있게 충분히 체험하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공간은 고객들의 편안한 힐링을 돕기 위해 밖에서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 형태로 꾸며졌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11일부터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0분씩 이용 가능하다. ‘리프레시 룸’은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 강서본점, 강동본점, 부평구청점, 북대구본점, 부산본점 등 6개 지점에서 운영된다.

‘리프레시 룸’에서는 ‘스타일러’와 ‘슈케어’로 외투와 신발을 관리하며, ‘안마의자’에 앉아 ‘엑스봄 360’으로 즐



모델이 LG전자 리프레시 룸에서 제품을 경험해 보고 있다. /LG전자

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스탠바이미’로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쾌적한 온도와 공기질을 조절해 주는 ‘에어로타워’와 ‘에어로퍼니처’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다.

‘리프레시 룸’은 1인룸 또는 2인룸으로 구성되어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제품 체험이 가능하다. 고객은 체험 후 매장에서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구매 상담도 바로 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올해 말까지 ‘리프레시 룸’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수렴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ngija\_tea@

## 삼성, 태국서 ‘비스포크 AI 콤보’ 알린다

인공지능 콤보 테크 세미나 개최

삼성전자가 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 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주요 매체 기자와 인플루언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능과 에너지 절감(Performance & Saving) ▲편리성(Convenience) ▲연결 경험(Connected Living)으로 나는 3개 존에서 비스포크 AI 콤보의 히트 펌프 기술을 비롯해 차별화된 강점을 체험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이 끝난 후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일체형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단독 건조기 수준의 우수한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

비스포크 AI 콤보에 탑재된 7형 와이드 LCD 스크린 AI홈(AI Home)은 터치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 경험을 직관적으로 향상했다. 또한,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으로 기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연내 동남아 8개국을 포함해 중남미와 유럽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 소액 통신요금, 3년이상 연체 추심 중단

금감원 “연체된 통신요금은 유지”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소액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추심금지 대상이 되려면 소비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통신요금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SKT는 12월 1일부터, 나머지 통신사는 1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이란 부당 추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추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심 등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연체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가 있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유플러스의 2030세대 맞춤형 통신 플랫폼 ‘너겟’이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호텔숙박권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 LGU+, ‘너겟’ 1주년 “숙박권 등 선물 쏜다”

LG유플러스의 2030세대 맞춤형 통신 플랫폼 ‘너겟’이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호텔숙박권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처음 선보인 너겟은 고객에게 초개인화된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선형요금제 기반의 통신 플랫폼이다. 월 2만6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 18종 요금제 라인을 갖추고 있다.

또한 너겟은 가족·지인 간 결합 할인 제공 서비스 ‘파티페이’, 매월 혜택이 달라지는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엑스팀’ 등이 주요 상품이다.

/이혜민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코스피·반도체 부진... 상장기업 3분기 실적 기대감 '썰렁'

전세계 주요 증시 평균 수익률 16.6%  
韓 코스피 -3.2%... 하위권 기록

삼성전자,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  
영업익 274.49% 증가에도 어닝쇼크  
개인투자자 저가매수, 外인 순매도세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삼성전자 주가 흐름' 그래프.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지만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전망이 기대치 이하로 보여져 코스피가 주가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전날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저가매수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자주 소외되는 韓 증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2600선을 되찾았던 코스피가 하루만에 2500선으로 다시 밀려났다. 지난 8월 5일 폭락장을 맞이한 이후 반등 흐름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주요 국가별 연초 이후 주가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한

국은 가장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4일 기준 올해 전세계 주요 증시의 평균 수익률은 16.6%이다. 아시아권 국가만 살펴봐도 대만 24%, 일본 16%, 중국은 12%씩이지만 한국의 코스피는 -3.2%를 기록하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업 실적과 같은 펀더멘탈의 훼손이나 미국

기업과 같은 밸류에이션의 과함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소외된다는 설명이 더 현실적인 정도"라며 "국내 시장 부진에는 반도체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의 코스피 대장주이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8월부터 9월 사이에는 -26.67%의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AI 열풍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8일 한국거래소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 증시 부진의 주요 원인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라며 "AI 반도체 열풍에 삼성전자가 소외된 것이고, 삼성전자의 문제를 반도체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실적 눈높이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확인되듯 추가악화 우려가 있다"며 "코스피 지수는 박스

권, 기술주의 상대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설마 '5만전자'?... 재미들은 오히려 '줍줍'

전날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원을 웃돌았던 만큼 '어닝쇼크'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은 부진한 실적 실적에 대해 이례적인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6만전자'로 내려온 이후 지난 7일에는 장중 5만원대까지 밀렸고 6만3000원 증가 기준으로는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역사적 밴드 하단에 근접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이엔드 제품과 레거시 제품 간 수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DDR5시장에서의 발전이 필요해 다소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을 발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6만원대로 밀렸던 9월달부터 현재까지 9조5209억원을 순매수했다. 동일 기간 외국인이 9조 8455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7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는 9236억원으로, 지난달 2일 6180억원 대비 49.4% 급증했다. 4일에는 9243억원으로 2021년 8월 24일(9356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고려아연 경영권 경쟁 '활활'... 금감원, 과열 진화 나서

국내 증권사, 관련 수입 최대 2500억  
공개매수 주관 수수료 수익도 있어  
금감원 "부당 영향 행위에 엄중 조치"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간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의 관련 수입이 최대 2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상황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고려아연·베인캐피탈과 MBK·영풍은 국내 은행·증권사 등으로부

3437억원 하나증권에서 5.7%에 1000억원 등을 빌렸다. MBK측은 NH투자증권에서 연 5.7%에 1조5785억원을 차입했고 이밖에 사모펀드 등을 통해 각각 2713억원과 1097억원을 조달했다. 조기 상환 여부에 따라 이자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관련한 증권사들은 대략잡아 최대 2500억원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또 공개매수 주관 수수료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 하나증권은 제리코파트너스의 영풍정밀 공개매수 주관 사를,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

영풍 측 공개매수 주관사를 맡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을 둔 분쟁 자체는 관련 회사들의 '치킨게임' 같지만 돈을 빌려준 증권사나 수수료를 챙길 증권사들은 짝퉁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 분쟁 양상에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경영권 분쟁사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을 외부에 흘리고,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형태의 품문 유포 행위 등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

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경고 때문인지 MBK는 9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며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의 추가 인상 여부와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3분기 호실적·주주환원을 확대... 금융주 다시 '주목'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실적 양호 전망  
주주환원을, 2027년까지 45% 이상 ↑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금리인하 시즌에도 3분기 호실적, 주주환원을 확대 기대 등으로 인해 금융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중장기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주는 지난달 말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에 대거 탈락하면서 일제히 조정받았다. 지수 발표 다음날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은 각각 3.19%, 4.76%씩 하락했으며 편입에 성공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5.14%, 1.33%씩 떨어졌다.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한 금융주들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KB금융은 10.51% 올랐으며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4.25%, 2.25% 상승했다. 신한지주만 0.

18% 소폭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다시 강세를 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4대 금융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조7881억원으로 전년(4조4423억원)과 비교하면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 이익 체력에 기반한 점진적

주주환원을 확대도 전망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정 성장과 자본비용 관리 노력에 기반한 주주환원 확대 모멘텀은 여전하다"며 "선도은행들의 경우 주주환원율은 2027년까지 45%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며, 주주환원율은 연평균 12~14% 증가할 것으로 현재 6~9%인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

# 금융업계, '접대비'만 2조4000억 지출

(5년 6개월간)

증권사, 업무추진비 1조1349억 중  
5대 증권 비중 33%... 총 3800억

술자리·선물·골프장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증권사들이 지난 5년 6개월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조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사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조134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를 포함해 은행과 보험 등 전체 금융업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에서 지적한 '업무추진비'는 이른바 '접대비'다. 접대비라는 단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됐다.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 등 고객과의 식사나

증권사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1조 1349억원으로 타 금융업보다 많았다. 은행은 9458억원, 보험은 3085억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김현정 의원은 "자산상위 5대 증권사(삼성·KB·미래·NH·한국투자증권)가 지출한 업무추진비만 총 3800억원"이라며 "조사 기간 동안 증권사 전체가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100%로 볼 때 5대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개별회사의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규제 마련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 수입 전기차 판매 ‘뚝’... EV3·캐스퍼 등 국산차는 ‘날개’

(일렉트릭)

## 전기차 온도차

지난달 수입차 총 판매 11.6% ↑  
전기차는 총 2753대로 33% 줄고  
테슬라 판매량 1349대, 39% 급락  
EV3 2075대, 캐스퍼 2202대 등  
국내 전기차 판매 ‘상승 분위기’



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주력차종 ‘모델Y’



테슬라 기아 더 기아 EV3 외장.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기 고장, 비용 결제 방식 등의 문제로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지난 8월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차 전체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2만 4839대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 반면 전기차 판매량은 2753대로 전월(4115대) 대비 33% 가량 감소했다. 청라 화재가 발생했던 8월에도 전월 대비 수입 전기차 판매가 약 10% 가량 감소한 것보다 큰 폭이다.

수입 전기차 판매량 하락세는 1위 테

슬라와 벤츠 등의 판매 감소의 영향이 크다. 테슬라는 지난달 1349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대비 39% 줄었으며 6월 5293대를 판매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가 지난 4월 중국서 생산한 가성비 전기차 모델인 ‘모델 3’를 출시하며 신차효과를 누렸지만 벤츠 차량 화재 이후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서 큰 인기를 끌었던 테슬라의 모델 Y는 중국의 판매량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모델 Y의 경우 올해 6월 3404대까지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을 견인했지만 지난달 793대로 하락했다. 중국산 모델 Y는 중국의 CATL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사용됐다.

전기차 판매 3위인 메르세데스-벤츠

는 차량 화재 발생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713대를 판매한 이후 8월 133대로 내려앉더니 9월에는 105대까지 감소했다. 2위 BMW의 경우 전월(406대) 대비 소폭 상승한 454대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지켰다.

반면 뛰어난 공간성과 첨단 기능, 경제성까지 갖춘 국내 전기차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현대차의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이다.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는 9월 한달 간 각각 2075대와 2022대 판매됐다.

EV3는 3000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1회 충전 시 501km를 달리면서 동급 대비 최장 거리를 기록했다. 여기에 회생제동 기능을 대폭 손봐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해

실내 공간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2000만원대에 경쟁 차량 레이EV보다 긴 1회 충전 시 315km를 달리면서 페달 조작 방식 기술 등 안전을 위한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

한편 지난달 수입차 브랜드별 국내 판매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8382대)가 BMW(7082대)를 제치고 1위 탈환했다. 이어 테슬라(1349대), 렉서스(1312대), 불보(1282대), 아우디(995대), 도요타(778대), 폭스바겐(760대) 등의 순이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선 BMW(5만 6529대)가 벤츠(5만 4376대)를 2200여대 가량 앞서고 있다. 또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면서 3위 자리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대한전선

### 싱가포르 기업과 MOU 8400억 역대급 수주

싱가포르에서 8400억의 역대급 수주에 성공한 대한전선이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민 방문 기간 동안 현지의 해양 사업 솔루션 전문 업체인 MEO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싱가포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석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됐다. 대한전선은 포럼의 주요 섹션인 MOU 교환식에서 MEO사와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MEO(Miclyn Express Offshore)는 14개의 해외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해양 사업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해상풍력지원선, 크루운송선 등 약 120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양한 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보유한 CLV 포설선인 팔로스(PALOS)호와 MEO의 선박을 동남아와 중동 지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공동 개발 및 참여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파리 모터쇼’ 참가... 자율주행·IVI 등 전략기술 공개

(인포테인먼트시스템)



현대모비스, 유럽시장 공략 나서  
프라이빗 부스서 신제품 시연 등

지난해 12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해외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현대모비스가 유럽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파리 모터쇼에 참가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4 파리 모터쇼’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사전 초청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신제품 시연과 영업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26년 역사를 맞은 파리 모터쇼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모터쇼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미국에서 개최된 CES와 지난 4월 중국 오토차이나에 이어 연달아 글



현대모비스 파리모터쇼 부스 조감도.

로벌 모빌리티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모터쇼에 처음 참가한 현대모비스는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르노 등과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고객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수주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사전 초청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라이빗 부스’ 형태로 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가 이

번에 완성차 고객사에 선보이는 전략 기술은 전동화와 자율주행, 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램프 등 분야 총 10종이다. 차세대 전기차 구동시스템(PE 시스템)과 배터리시스템(BSA), 전장 SW 플랫폼과 투명 디스플레이, 차세대 사시 시스템(XBW:X-by-Wire)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이는 유럽 시장의 기술 트렌드에 능통한 현지 영업 전문가(KAE)와 연구개발 조직 등이 유럽 고객사의 관심사를 사전에

분석해 선정한 기술들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모터쇼 기간 중 유럽 완성차 고객사 최고경영층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중역들과 심도 있는 비즈니스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대모비스는 이들에게 주요 전략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미팅을 통해 사업 기회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의 이 같은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은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유럽 메이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을 대상으로 전동화 핵심 부품인 배터리시스템(BSA) 대규모 수주를 따냈고,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전용 모델에 들어가는 사시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완성차 대상으로 92억 2000만달러(약 12조 2000억원)를 수주하며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장관급 선언문 공동채택

산업부, 글로벌철강포럼 장관급 회의  
美·유럽연합·日 등 24개국 한자리에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저녁 온

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GF 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철강포럼은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개최된 G20 항저우 정상회의의 계기로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국

이 가입해 있다.

이번 회의는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각국 대표들은 철강 과잉설비가 2023년 5억 5000만톤에 달하고, 2026년

엔 6억 3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가국들은 철강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대응수단 확보 ▲새로운 국가로의 멤버십 확장 등 향후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의 세부내용과 선언문 원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LG전자

### 美 가전 유통 로우스 ‘베스트 파트너’ 선정

LG전자가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 가전·인테리어 유통업체인 로우스(Lowe's)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로우스는 미국 전역에 1700개 매장을 보유한 주택 리모델링 용품 판매업체 미국 최대 규모 가전 유통체인 중 하나다.

LG전자는 홈 데코(Home D?cor) 부문에서 로우스의 베스트 파트너에 올랐다. 로우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가전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가전제품 파트너사 중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글로벌 가전기업 중에서 올해 로우스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곳은 LG전자가 유일하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로우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해 왔다. 로우스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LG전자를 각각 올해의 지속가능성 파트너와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하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中企 해외진출, 선택 아닌 필수... 글로벌화 ‘함께’ 해야”

중기중앙회, 제주 리더스포럼서 ‘中企 글로벌화 대토론회’ 개최  
오동운 교수 “외부와 함께 혁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韓 경쟁력될 것”

“글로벌화는 절대 (기업) 혼자 하지 마라. 함께 해라.”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R&D), 디자인, 조달, 제조, 유통, 마케팅, 사후 서비스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 제품이 아닌 생산 및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의 공급망을 글로벌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구축’도 절실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연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동운 동아대 교수는 “한국은 R&D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혁신기업 비중은 최하위”라면서 “이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일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오동운 동아대 교수,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부호 주한 베트남대사, 김우재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장,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1.8%는 내수기업이다. 수출기업은 고작 8.2%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9.7%에서 2022년에는 16.7%까지 떨어졌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23년 기준으로 9만4635개로 10만개가 채 되지 않는다.

오 교수는 “한국의 혁신기업 중 외부와 함께 하는 기업 비중은 현재 14%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혁신과 글로벌화는 하나의 묶음이다. 내부에서만 혁신은 한계가 있다. 외부와 함께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화를 위해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정 상품만 글로벌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 모든 서비스를 글로벌화할 수 있다.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부터 생산 및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뺏속까지’ 모두 글로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견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우각 중기중앙회 부회장, 부호 주한 베트남대사,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 김우재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장,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이 함께 했다.

박종범 회장은 “유럽 시장에서 한류 열풍으로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진

지금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유럽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신뢰 기반의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현지 기업·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상구 회장은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전 세계 750만 해외 동포의 한인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라며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협회 및 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따로 놀지 말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 합작 투자 등 새로운 협력을 추가로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현재 8682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732개다.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투자 1순위이자 수출 3위 국가다. 한국도 베트남의 3위 수출 국가다.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는 “양국의 관계가 더욱 강력하게 발전함에 따라 농업, 고급 기술, 식품 가공, 의약품, 에너지, 생명공학, 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순환 경제, 공유 경제, 반도체, 인공지능, 수소,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뷰티·푸드’로 수출길 여는 우수 中企 지원”

중기부, 신세계디에프·이마트 협력 ‘K-전략품목 어워즈’ 오늘부터 모집  
1·2차 평가 후 최종 15개사 안팎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세계디에프, 이마트와 함께 ‘K-전략품목 어워즈’ 참여기업을 10일부터 모집한다.

K-POP, K-콘텐츠 등 한류 인기 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뷰티·푸드 분야의 우수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해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등을 포함한 뷰티 분야와 글로벌 시장에서 라면을 필두로 과자류, 음료, 냉동김밥 등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푸드 분야를 2대 전략품목으로 설정했다.

먼저, 뷰티 분야 K-전략품목 선정 기업에 대해선 중기부와 신세계디에프가 협업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세계 면세점 팝업스토어 운영, 수출 전략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푸드 분야 K-전략품목 선정기업은 중기부와 이마트가 협업해 선정기업에게 국내·외 이마트 매장과 유통망 등을 활용한 수출 전략 컨설팅,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뷰티 및 푸드 분야 K-전략 품목 모든 선정 기업에 대해 해외 전시



세종시 어진동 중소기업부. /뉴시스

회 참여 등 홍보 마케팅, 수출바우처 등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제품평의회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서면평가에선 뷰티·푸드 분야별 50개사씩 총 100개사를 고르고, 이후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기업(신세계디에프, 이마트)의 MD 등이 참여하는 제품평의회를 거쳐 분야별 최종 15개사 안팎을 선정한다.

참여대상은 수출액 제한 없이 자사의

화장품, 이·미용기기(뷰티 분야), 식품 제품(푸드 분야) 등을 보유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의 ‘K-전략품목 어워즈’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CJ올리브영과 ‘K-슈퍼푸드 어워즈’ 참가기업도 모집한다.

이는 중기부가 수출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잠재력이 높은 화장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올리브영과 함께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은 전년도 화장품 수출 실적 1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다. 평가는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요건,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올리브영의 글로벌 전문 MD가 수출 가능성, 시장성, 사업 적합성 등을 평가해 최종 2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올리브영이 담당 MD를 통한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제 바이어 및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관광 상권에 위치한 올리브영 매장에 선정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별도 공간 마련 등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화장품 관련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기업의 수출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글로벌 소포몰 입점·판매 등을 내년에도 연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몽골 진출 中企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진공, ‘교통안전사업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수출역량 진단 등 솔루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11일 까지 몽골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한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년도 몽골 교통안전사업 수출상담회’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시작했다.

중진공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담회 참여기업의 수출역량을 진단하고 ▲정책자금 ▲바이어 발굴 노하우

▲수출 준비절차 ▲해외시장 동향분석 솔루션 등을 전수했다.

또한 해외진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몽골 현지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중진공의 수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중진공 김일호 글로벌성장지사는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협업을 발굴·확대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SK매직, 정수기·공청기 위글위글과 콜라보 호응

SK매직이 지난 4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Wiggle Wiggle)’과 함께 선보인 콜라보 정수기 2종이 MZ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제품군을 공기청정기와 비데로 확대해 출시했다.

9일 SK매직에 따르면 ‘SK매직X위글위글 코어 공기청정기’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강력한 공기청정 기능이 강점으로 개성있고 감각적인 위글위글 시그니처 IP ‘스마일 위 러브’와 노란빛 컬러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나만의 인테리어 연출할 수 있다.

## 구몬학습, ‘스마트N’ 확대 페이퍼플러스 서비스 선택

구몬학습이 스마트구몬N의 학습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페이퍼플러스(PAPER+)’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9일 구몬학습에 따르면 페이퍼플러스(PAPER+)는 종이 교재로 학습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종이 교재에 기존처럼 연필로 문제를 푼 회원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로 교재를 스캔하면 그대로 데이터가 인식돼 채점센터로 전송한다.

/김승호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예매하기



##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출연 김남호 김늘메 김준희 김민주 임재혁 정지환 이서정 이하정 차은진 김민성 서찬양 장이슬 석우성 손슬기 윤환호 김진솔 정다운 최린 김상원 서태이 양승환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 근로복지공, 사회보험 가입 적극 유도

국세청·건설근로공제회와 협업 통해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추진  
자료 제출 주기, 분기 → 매월 단축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건설사업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

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를 지난해 56만명, 올해 30만명(8월 기준)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에선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일용근로자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이번 협업

으로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자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서왕진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에 타격”

(산업위 의원)

## 산업부 국정감사

정부 대책으로 신규발전허가 중단  
광주·전남에 ESS 설치계획 요청  
정부, 적극·전향적인 해결안 필요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과 달리 광주는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지역별 맞춤형 대



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

적이라며,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ESS 설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과 데이터센터 등을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안 장관은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지역은 2026년 6월 이후 접속하는 조건으로 발전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농식품부 “이달 말부터 출하량 증가… 가격하락 체감 기대”

송미령 장관, 배추 생육상황 등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추 출하량이 이달 말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9일 충북 단양의 배추밭을 찾은 자리에서 “그동안 배추 소비자가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가격 하락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순별 공급량이 균일화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이 출하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상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공급이 부족할 시에 대비해 배추 생육관리 및 수입 물량 활용 등 대비책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이달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을 점검했다. 또 휴일임에도, 배추 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23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를 방문해 배추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출하될 배추는 지난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달 송 장관과 동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다.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경의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 예정이던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 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해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진청 “2027년까지 콩 자급률 43%로 끌어올릴 것”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정부가 2022년 기준 28% 수준인 콩 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4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전략작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농진청은 콩 생산 기반 조성 과 국산 콩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와 협력해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한창이다.

각 권역에 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한다. 또 품질 균일화를 위한 수확 후 종합처리, 지역특화 콩 제품개발까지 연계해 콩 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생산단지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까지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남 당진, 전남 함평, 충북 괴산, 경남 사천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특화단지 모델로 육성되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 파주, 경북 영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업이 적용된 당진의 경우, 습해를 줄이고 콩 수확량을 늘리는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투입해 시범 재배지를 조성했다. 기술 투입 후 논콩 재배면적도 153헥타르(ha)에서 올해 223ha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진청장은 지난 8일 당진의 한 사업현장을 찾아 논콩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권 청장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논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전파와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용도별 신제품 콩 보급과 품질향상, 민간과 협업해 지역 콩을 활용한 특화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논콩 작황은 생육기간 내내 고온이 지속되고 7~9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이상 수준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은 숙기가 짧고 내습성이 강한 이모작 적합 품종 개발을 비롯해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등 논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가공 특성·기능성 등을 고려해 국산 콩을 용도별로 세분화하고, 대체 단백질용 소재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

내년 6월부터 적용 예정

환경부는 오는 10월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 6층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

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준연도를 고려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으로 개편된 것.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는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신규로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된다.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환경부는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편안의 경우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 aT, ‘K-푸드+ 수출탑’ 도전기업 50곳 모집

오는 12월 중 시상식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31일까지 제2회 ‘K-푸드+ 수출탑’에 도전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올 연말에 거행된다.

9일 aT에 따르면 시상은 ▲수출 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 ▲수출 성과에 따라 수여하는 ‘테마탑’(도약상·시장개척상·스마트팜상·상생협업

상)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K-푸드+수출탑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자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출실적 인정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간이다. 직접 실적뿐만 아니라 간접 실적도 인정된다. 약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14개국서 '파리바게뜨' 맛본다... SPC '글로벌 경영' 속도전

현재 美·중 등 11개국에 590개 매장  
태국·브루나이·라오스 추가계약  
내년 신규진출 3국에 매장 첫 오픈

연내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서  
글로벌 할랄인증 제빵공장 가동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서 5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에 추가로 진출 계약을 체결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7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진출에 성공적으로 협력한 바 있는 버자야푸드(Berjaya Food)사와 태국 및 브루나이 내 파리바게뜨 운영을 위한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라오스에서 현지 유통기업인 코라오그룹(KOLA O Group)과 MF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동남아시아 9개국, 세계 14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태국은 서구화된 식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 베이커리 시장이 연 평균



7일 싱가포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파크웨이 퍼레이드'점에서 파리바게뜨 허진수 사장(오른쪽)과 코라오그룹 오주영 신사업 총괄이 라오스 진출을 위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PC그룹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40여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해 있다. 파리바게뜨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브루나이와 라오스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 트렌드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영미권 가맹사업 범위를 넓히고 할랄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5년 신규 진출 3개국에 모두 첫 매장을 열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건립 중인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을 본격 가동시키는 등 SPC그룹의 주요 글로벌 성장축의 하나인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 SPC그룹이 건립 중인 조호르바루 제빵공장은 SPC그룹 허진수 사장이 지난달 현장에 방문해 첫 시운전을 참관하고 시제품의 품질 상태를 체크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막바지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번 동남아시아 신규국가 마스터 프

랜차이즈 계약 체결은 싱가포르의 21번째 파리바게뜨 매장으로 새로 오픈한 '파크웨이 퍼레이드(Parkway Parade)'점에서 파리바게뜨 허진수 사장과 버자야푸드 CEO 시드니 키스, 코라오그룹 오주영 신사업 총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스마트팜 스타트업인 '넥스트온'과 동남아시아 현지 파리바게뜨에 대한 딸기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이미 국내에서 파크크라상에 스마트팜 재배 딸기를 공급하고 있는 넥스트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고, 파리바게뜨도 해외 현지에서 우수한 국산품종의 딸기를 공급받아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SPC그룹 허진수 사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함께 동남아·중동 시장을 중요한 글로벌 성장축으로 삼은 허영인 회장의 글로벌 경영 비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글로벌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내 매장 수 1000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북미 지역에서 '2024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컨벤션'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처음 열린 가맹점 대상 대규모 행사로 파리바게뜨의 북미 가맹사업이 순항중임을 증명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북미지역에 18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비율은 90%로 올해 상반기에만 20여개 가맹점이 새로 문을 열고 83개의 신규 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지 가맹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맹사업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가 정착을 넘어 가맹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진출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지 제과제빵 브랜드에 비해 다양한 베이커리 상품 라인업과 디자인·브랜드 인지도, 오랜 기간 동안 시물레이션을 통해 검증받은 '가맹점 수익 모델' 등이 꼽힌다.

한편, 지난달 19~21일에는 허진수 사장이 체코 프라하에서 '파리바게뜨 유럽 리더십 회의' 등을 열고,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동유럽 시장 진출 계획을 논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현대백, 개인정보 활용현황 업계 첫 공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센터' 신설  
수집항목·목적·기간 등 확인가능

현대백화점이 주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특성상 구매이력과 배송지 정보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이처럼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내 '개인정보 보호센터' 메뉴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메뉴에서는 현대백화점 홈페이지나 현대백화점 모바일 앱, 현대백화점카드 가입자라면 누구나 현대백화점이 어떤 개인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센터 세부 항목 중 '마이 프라이버시'를 클릭하면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수집항목과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이 공개돼 있다. 서비스 가입과 함께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이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 현황까지 전반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품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름·배송 주소·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며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송 완료 후 2개월까지 정보를 보유한 뒤 파기한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고객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수집됐다고 판단될 경우 현대백화점에 개인정보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마이 프라이버시 항목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방침, 관련 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법률', 현대백화점이 개인정보 수집, 저장, 처리, 파기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를 기재한 '개인정보 보호활동' 항목 등도 마련돼 있다.

현대백화점은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직속으로 정보보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6개월에 걸친 기획 및 설계 끝에 개인정보 보호센터를 오픈하게 됐다.

현대백화점이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신설한 것은 ESG 경영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활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는 장치가 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실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최빛나 기자 vitna@

## KGC인삼공사, 0칼로리 '홍삼원 딜라이트'

대추·계피·생강 원료 라임향 음료



KGC인삼공사가 '제로(0)칼로리'에 산뜻한 라임 향을 더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홍삼원 딜라이트(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홍삼원 딜라이트는 홍삼에 대추, 계피, 생강, 구기자 더한 정관장만의 식물성분 포뮬러에 비타민 B1, B2, C3종과 필수아미노산 9종 설계로 지친 일상에 상큼한 활력을 채워 주는 제품이다. 칼로리와 색소까지 모두 제로로 열량 걱정 없이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모디슈머, 믹솔로지 트렌드로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개인 취향에 맞춰 즐기는 2030 세대가 많다. 아이스티에 얼음 대신 냉동망고를 추가하는 '아망추',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하는 '아샷추', 탄산음료에 피클을 더하는 이색 조합들이 인기이다.

'홍삼원 딜라이트'는 다양한 음료나 과일을 더하는 '내시피(나의 레시피)'를 만들어 즐기기에 적합하다. 산뜻하고 청량하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홍삼원 딜라이트'에 우유, 두유와 같은 단백질을 더하면 운동 후 든든하게 활력 충전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 KT&G, 20일부터 '상상 블루 파빌리온'展

상상마당 부산갤러리서 우수작 전시

KT&G가 지역 폐기물을 재활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2024 상상 블루 파빌리온'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을 오는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상상 블루 파빌리온'은 KT&G가 운영하는 대학생 참여 플랫폼인 '상상유니브'가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프로

그램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Dreamweave :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아이디어 공모에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236개 팀이 참여했으며 디자인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경연을 거쳐 최종 18개 팀이 선정됐다. 이후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실제 조형물 제작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페타이어와 철제 구조물, 폐현수막 등을 활용한 조형물로 제작됐으며, 전시 종료 후 해체된 조형물은 이후 업사이클링 작품 재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상상유니브'는 지난 2010년부터 KT&G가 운영하는 대학생 성장지원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누적 참여자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신원선 기자

## 쿠팡 로켓프레시에 부산 빵집 '옵스' 입점

대표상품 '학원전' 3종 선보

쿠팡 로켓프레시에 부산 대표 인기 베이커리 '옵스'가 입점했다.

옵스는 부산 3대 빵집 중 하나로 꼽히는 30년 전통의 인기 베이커리로, 온라인 직거래는 쿠팡에서 최초로 진행한다. 이번 입점으로 와우회원은 옵스의 다양한 제품을 로켓프레시로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로켓프레시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제품은 옵스의 대표 상품인 '학원전' 3종

으로 ▲옵스 학원전 케이크 미니버스 3개입 ▲옵스 학원전 케이크 부산 10개입 ▲옵스 학원전 케이크 20개입이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유명 베이커리 제품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로는 노티드, 아티제, 베카아에뉴보, 오설록, 몽슈슈 등이 있으며 각 브랜드 인기 제품에 대한 새벽, 당일 배송을 제공한다. 브랜드와의 동반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추석명절 기간 동안 태극당, 한식제과, 화화호도과자 등이 로켓프레시에 신규 입점하려고 고객의 큰 호응을 이뤘었다. /최빛나 기자

# “게임만 검열, 형평성 어긋나”... 헌법소원 최다인원 청구

(21만 751명)

뉴단간론과V3, 전체 이용불가 판정 세계 각국선 15세·17세 이용 가능 다른 분야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 명확성의 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역사상 역대 최다인원인 약 21만 명의 게이머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게임산업진흥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화 및 드라마와는 달리 게임만 엄격한 사전 검열 범망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유튜브 ‘김성희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희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21만751명의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출하기 앞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 소원 청구 대상이 된 법령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다. 해당 법령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와 유튜브 김성희 씨(왼쪽부터)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즉,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게임물을 제작,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게임물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급 분류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어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형평성이다. 기

자회견에 나선 유튜브 김성희 씨는 이번 헌법소원에 단초가 된 게임 ‘뉴단간론과V3’를 언급했다.

김 씨는 “(해당 게임은) 세계 각국에서도 15세, 17세 정도로 이용 가능한 게임”이라며 “나치의 역사 때문에 게임의 폭력성 검열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독일에서조차 16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

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게임을 19세 이용가 성인 등급도 아니고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게임 관련 타 국가와의 비교를 넘어 국내 게임과 다른 예술 문화 분야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씨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K 콘텐츠 위상을 세계에 떨친 좋은 작품으로 찬사받는 반면 그와 (내용이) 비슷한 이 게임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만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오징어게임의 피디가 드라마 피디가 아닌 게임 제작 디렉터였다면 그는 위대한 창작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긴 배경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철우 변호사는 “검열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내가 출시하려는 콘텐츠가 검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제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돈 들

여 제작하고, 개발하고, 수입해 와서 번역하고 등급 분류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해당 법이 명확성의 원칙, 즉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위반 사항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게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에 따른 게임 콘텐츠 규제가 (게이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 자유를 제한한다”며 게이머의 관점에서, 게임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관점에서도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헌법 소원 청구 건과 관련해 유튜브 김성희 씨를 오는 17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니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대웅제약, 글로벌 시장서 K제약 기술 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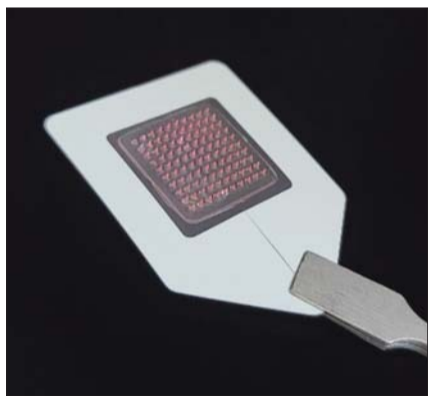
이탈리아 CPHI서 제제 기술 선배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상용화 목표 펙수클루·엔블로 해외 진출도 박차

대웅제약이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성과를 이어갈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하고 K제약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대웅제약은 오는 10일까지(현지 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2024’에서 다양한 제제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웅제약은 약물 전달 시스템(DDS) 분야에서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응용해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 계열사 대웅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기술로 구현한 ‘클로팜’은 가로·세로 1cm<sup>2</sup> 면적 안에 약 100개의 미세한 바늘로 구성된 플랫폼이다. 바늘이 체내 투입 후 녹으면서 약물을 방출하는데, 가압건조 공정과 완전밀착 포장에 적용돼 약물의 균일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니들은 오염되기 쉽고 약물이 균일하지 않은 등 단점이 있었는데 클로팜은 이를 모두 극복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성장호르몬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기도 했다. 생물의약품 용해성 마이크로니들로는 국내 첫 사례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한 달에 한번 맞는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를 공개한다. 대웅제약은 약물 유지 효과는 늘리고 투약 빈도는 줄인 데다 통증 없는 마이크로니들까지 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환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대장정결제 ‘DWRX1010’도 내놓는다. 기존 대장 내시경을 위해 처방되는 대장정결제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장정결제는 사이즈가 매우

작은 ‘미니 알약’ 형태로 목 넘김이 편해 대 장내시경을 준비하는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다.

올해로 10년째 CPHI에 참가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처럼 기술적 우위라는 기업 입지를 강화하고 2년 연속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한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펙수클루와 엔블로는 각각 제34호, 36호 국산 신약으로 대웅제약은 이들 제품의 성장세에 힘입어 ‘국산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P-CAB(캡)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클루’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출시 후 올해 5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만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6.8% 증가한 5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올해 연매출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SGLT-2 억제제 신약 ‘엔블로’는 적응증 추가를 위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증의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에 대한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올해 멕시코에서 엔블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오는 2025년 안에 멕시코 현지에서 정식 발매하는 등 중남미 지역 공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신세계푸드, 성수동서 ‘식물성 음료’ 행사

카페 8곳과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 진행

신세계푸드는 식물성 음료 ‘유아얏유 잇라이스 베이스드(이하 라이스 베이스드)’의 소비자 경험 확대를 위해 성수동 유명 카페들과 협업 행사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는 ‘구육희씨’, ‘기달빙’, ‘라바트리’, ‘로우키’, ‘모피크’, ‘바이러니 에스프레소 바’, ‘커피넵 로스터스’, ‘클래식 해

레커피’ 등 유명 카페 8곳에서 ‘라이스 베이스드’를 활용해 만든 음료와 디저트 등 트렌디한 메뉴 14종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라이스 베이스드’는 신세계푸드가 국산 가루쌀, 현미유 등 100%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깔끔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한 식물성 음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생활건강, 화장품 등 최대 70% 할인

오는 13일까지 ‘엘지력키페스타’

LG생활건강이 오는 13일까지 네이비쇼핑 내 LG생활건강 브랜드 스토어에서 ‘엘지력키페스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엘지력키페스타’는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를 최대 70% 할인가로 판매하는 행사다.

뷰티 브랜드 중에선 더페이스샵의 경우 최대 70% 할인과 함께 도착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온드, 오후, 숨37°, 빌리프, CNP, 수려한, 이자녹스 등도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각 스토어별로 구매 금액의 최대 15%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네이버 N포인트 최대 20% 추가 적립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브랜드 별로는 일정금

액 이상을 구매하면 각 브랜드 화장품 샘플, 파우치, 브러시 등 다양한 사은품을 한정 수량으로 받아볼 수 있다.

생활용품에서는 삼푸, 치약,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최대 63%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닥터그루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맥주효모 성분이 담긴 마이크로바이옴 맥주효모 삼푸를 비롯해 멀티퍼펙션부터, 스칼프솔루션, 밀도케어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최대 57% 할인을 적용한다. 피지오겔은 환절기에 맞춰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한 데일리문 앰플, DMT 크림, 신제품 베리어 크림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제로 등 인기 음료를 최대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이정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구맷, 홈 캔들 컬렉션 선보

총 5개 향으로 구성

아모레퍼시픽은 니치 향수 브랜드 구맷에서 홈 캔들 ‘레 조르 구맷’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컬렉션은 베스트셀러 향과 새로운 향 2가지를 포함해 총 5개 향으로 구성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구맷의 대표 향 ‘윈 포레 도르’는 시트러스한 향과 우디한 향으로 차갑고 깨끗한 겨울 숲의 향을 표현한다. ‘영 에어 드 아드리앙’은 평온한 느낌을 전달하고, ‘윈드 메종 드 캄빠뉴’는 장미와 블랙 커런트 향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맷이 새롭게 선보이는 ‘앰버 에 볼립페’와 ‘부아 서더’는 각각 샌달 우드, 스토키우드 향이다. ‘앰버 에 볼립페’는 사막의 고요한 순간을 구현한 부드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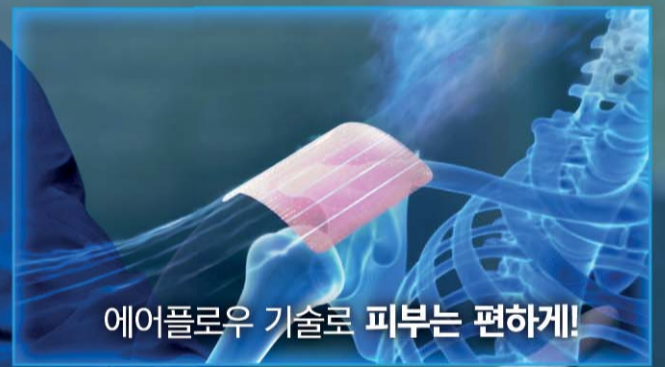
구맷 홈 캔들 '레 조르 구맷' 컬렉션 /아모레퍼시픽

향인데 비해 ‘부아 서더’는 모닥 불에 타오르는 나무 연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레 조르 구맷’ 디자인은 각진 형태에 금속 라벨 장식이 더해져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갖췄다. /이정하 기자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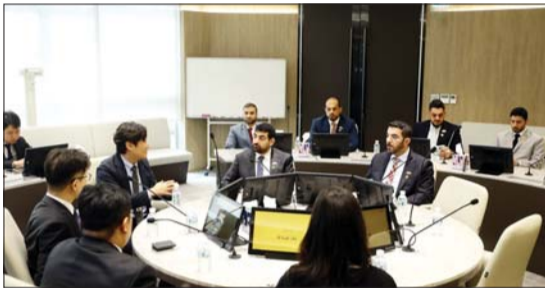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시선, 바뀌어야



카카오-인천공항소, 카카오프렌즈 브랜드 캠페인

카카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카카오프렌즈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 양사는 공항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한 브랜드 영상 ‘플랫폼 오브 이모션즈’를 인천공항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과 ‘춘식이’가 인천공항을 방문해 벌어지는 에피소드 형식이다. 영상은 연말까지 인천공항 내 대형 스크린 55개에서 상영된다.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샤르자 디지털청 협력방안 논의

카카오모빌리티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토착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디지털청(SDD) 방문단이 판교 사옥을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로봇·디지털트윈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비전과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KT, 13일까지 ‘Y포차 팝업스토어’ 운영

KT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만 34세 이하 KT 멤버십 청년 고객들을 위한 ‘Y포차 팝업스토어’를 13일까지 연다고 9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이용 고객은 웰컴스낵, 도토리 캐리커처 무료 체험, 석촌호수·롯데월드타워 배경 기념사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KT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장학생 도전하세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32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지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이다. 현재까지 17년간 총 7208명의 대학생이 전세계 50개국에 파견됐다.

32기 장학생 모집기간은 오는 14일 15시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총 2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송실대, 해외 기독교 유물 초청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송실대 개교 127주년과 서울 세움 70주년을 맞아 해외 기독교 유물 초청전 ‘영감 Inspiration, 흔적 Traces, 송실 Soongsil’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미국의 인스파이어드 전시회(Inspired Exhibit)와 협업해 마련됐으며, 한국과 미국의 성서 기록과 전파 과정이 총 3부에 걸쳐 전시된다.

특히, 3부에서는 송실대 재학생들의 참여 전시도 예정돼 있다. /이현진 기자 lhj@



기고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지난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문화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게임이 4위에 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게임을 취미로 즐기는 국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과거에는 게임이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반면,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와 ‘브롤스타즈’, 여성들도 ‘동물의 숲’이나 ‘오버워치’, 고연령층도 ‘고스톱’, ‘윷놀이’ 기타 간단한 퍼즐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게임 관계 법제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의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가 제도와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에 게임이 포함되는 등 게임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유저들이 직접 ‘게임’에 대한 제도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집단 민원이나 국민동의청원 등의 의사 표명은 물론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 참여자가 21만 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의 내용에 대해 표현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과,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그 이면의 진의는 “게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매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봐 달라”는 게임 이용자의 간절한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게임 이용자들은, 소비자이자 정책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가 주축이 된

게임 정책 공론화의 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이머들에게, 속도를 늦추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스스로 청구인으로 참여해서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숫자가 2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헌법소원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이며, 기존과 같이 그냥 흘러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K-게임의 재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게임이 다른 문화 콘텐츠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상품과 정책의 수요자인 게이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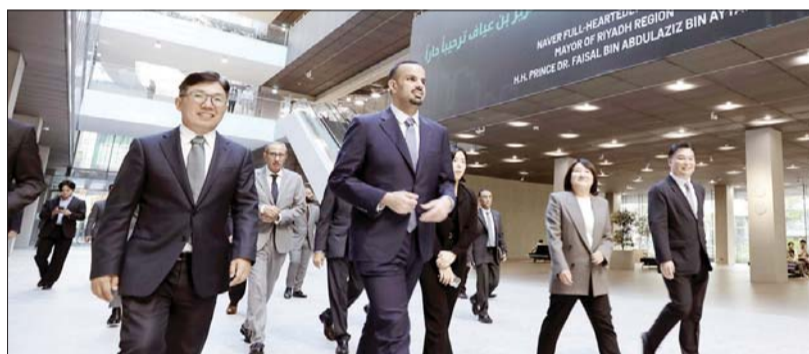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 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파트너 맞이

리야드 시장 등 1784 방문

네이버가 지난 8일 네이버 1784를 방문한 파이살 빈 아야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과 모하메드 알부티 NHC CEO 등 일행을 맞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한 리야드 시와 NHC, Balady는 모두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될 서울시 스마트 라이프 워크를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는 파이살 빈 아야프 리야드 시장과 모하메드 알부티 NHC CEO, 아세르 알로바이단 CEO, 마이클 다이크 뉴 무라바 CEO, 아심 알-수하이바니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를 방문한 파이살 빈 아야프(Faisal bin Ayyaf) 리야드 시장 일행을 채선주 네이버 ESG대외 정책 대표,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맞이하고 있다. /네이버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재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이자 현재도 다양한 기가 프로

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리야드는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5개 도시를 대상으로 구축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주요 도시이자 네이버의 중동 총괄 거점 자리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환경부 “친환경 첨단 기술 체험해보세요”

12일까지 ‘ESG 친환경대전’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10개 기

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녹색제품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 포장 분야 등 410개 전시관을 조성해 최신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첨단 기술 및 정책 등을 소개한다.

부대행사로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전시장 내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토론회’가 열린다.

아울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을 위해 해외 수출, 공공조달 구매, 차세대 친환경포장 등을 주제로 상담회가 열린다.

참관객이 직접 녹색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김안섭 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GC녹십자의료재단, 영남 분원 준공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8일 경남 양산에서 영남 분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GC녹십자의료재단에 따르면 새롭게 준공한 영남 분원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을 포함해 총 6개층, 연

면적 약 1694평으로 권역내 최대 규모다.

특히 분원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김체의 수평 및 수직 이동이 가능한 로슈진단의 자동화 장비를 도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의료재단 영남 분원 준공도 /GC녹십자의료재단

## SKT ‘감정 과수원’ 전시

SK텔레콤(SKTEL)은 서울 홍대의 T팩토리에서 내달 30일까지 ‘감정 과수원’ 전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감정 체험으로 구성됐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감정 상태를 돌아보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농부가 과일 나무를 키우는 여정에 비유했다.

SKT는 티팩토리 1층을 도심 속 과수원을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몄다. 관람객은 나무가 우거진 과수원에서 작은 화분에 흙을 채우고 과일 씨앗을 심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 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 배포

제주항공이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

제주항공은 ‘플라이트 산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했으며,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한 서체라고 9일 밝혔다.

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제목용 1종과 본문용 2종의 굵기로 개발됐으며, 한글 4600자와 영문 300자, 기호 활자 970자로 구성됐다.

/박대성 기자 iunmids@

## 부음

▲김동기씨 별세, 김소영(금융위 부위원장)씨 부친상= 9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10시.

▲이순자씨 별세, 김수환(부산경찰청장)씨 장모상= 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50분, 장지 용인공원, 02-2072-2020

# 소금 이야기



연필의  
푸드톡

짠맛을 대표하는 물질은 소금이며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물이다.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질산염, 황산염등도 약간의 쓴맛과 함께 짠맛을 나타낸다. 소금은 해수로 만드는데, 해수에는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 쓴맛을 내는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암염을 용해한 뒤에 소금에 수산화나트륨과 이산화탄소를 첨가하여 마그네슘과 칼슘을 침전시키고 이들을 암염에서 제거한다. 쓴맛이 나는 잎사귀를 맛있게 만들었다는 뜻인 샐러드(salad)의 어원과 소시지(sausage) 역시 '소금'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소금 퇴적물에서 소금 결정체를 채취해 왔다. 수천년 전에 형성된 암염 퇴적물은 바다가 용해하여 수분이 증발하면서 결정화된 이후 지질학적 과정을 거친 후 거대한 염화나트륨 덩어리가 된 것이다.

19세기까지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맛

을 내는 용도로 생산되었다. 대부분의 암염은 용액으로 채굴하거나 물을 펌프로 퇴적물에 퍼 올려서 소금을 녹인 후에 소금물을 진공실에서 증발시켜 고형의 결정체로 만든다. 충분히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야외 염전에서 태양열로서서히 수분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천일염은 진공하에 급속하게 증발시켜 생산한다.

소금에 대한 민감성과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사람마다 다르다.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의 숫자와 효율성, 건강상태, 나이, 경험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젊은 성인들은 대부분 물 10리터에 소금 1티스푼이 녹아 있는 0.05%의 소금 용액의 짠맛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성인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염도가 두배로 더 높아져야 비로소 짠맛을 감지할 수 있다.

지나친 소금섭취는 암을 유발하거나 고혈압으로 혈관을 손상하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저염식이 혈압을 조금밖에 낮추지 못하거나 지나친 저염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농축액이든 삼투압에 의해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수분을 용출하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세포액 속의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 농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음식에 들어있는 소금은 부패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한편 소금에 내성이 있는 유익한 내염성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보존성과 맛을 향상한다.

우리 몸은 소금성분인 나트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없다면 영양분은 물론 산소도 운반할 수 없게 된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장과 근육을 움직일 수 없으며 신경자극을 전달할 수조차 없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화 중 '남편에게 소금을 뿌리는 여인들'이라는 판화에는 "이 소금과 더불어 마침내 튼튼한 체력은 부족함이 없을 지어다"라고 새겨져 있다. 소금이 남성의 정력을 한층 북돋아 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살라스(salax) 소금에 절여진 상태라고 했고 독일에서는 결혼식때 소금을 뿌리는 전통이 있다. 이집트 성직자들은 소금이 성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소금섭취를 못하게 했다.

/ESG푸드테크 소시이어티 대표 imyeon@gmail.com

# 은행의 장애인 고용 미달, 과연 이득일까



기지 수집  
나유리  
(금융부)

상명대학교에서 경북공역으로 향하는 7016번 버스에 다양한 사람들이 탄다. 얼핏 생각해보면 '대학생이 많이 타겠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쁜 오후, 신고동에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그 못지 않게 탄다. 국립 맹학교와 농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이들이 일반버스로 하교하는 것이다.

종로구에서 지내는 몇년간 가장 많이 바뀐점을 꼽으라면 눈과 귀가 기민해졌다는 사실이다. 골목 뒷전에서 들리는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White Cane) 소리를 걸을 비길 수 있게 됐고, 흰지팡이 소리로 거리를 파악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도 누

를 수 있게 됐다. 버스 뒷자리에 청각장애인 4명이 앉았으면 비좁고 들어가지 않는다. 수화로 대화하기엔 뒷자리는 4명으로도 비좁을 수 있어서다.

최근 국감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은 1.33%로 집계됐다. 의무고용률인 3.1%보다 절반 가량 떨어진다. 의무고용률인 3.1%보다 절반 가량 떨어진 수치다. 은행의 이유는 한결같다. 금융업의 경우 전문성이 높고, 금융소비자와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장애인 은 많다. 2023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등록 장애인 수준의 권리를 갖는 인구는 264만 명, 장애인과 평균기능에 못미치는 경계성 장애인인 699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장애 인지상 어려움을 갖고 있다

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잠재적 장애인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나의 눈과 귀가 기민해질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다. 장애인들과 자주 접하고 있어서다. 그들의 삶과 섞이지 않는 한 그들의 금융생활도, 실질적 불편함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영국 장애인가구를 조사한 퍼플은 "장애가구의 소비력을 과소평가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기업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해 욕구를 반영한 상품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은행이 장애인 고용시 우려했던 금융소비자와의 대면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잠재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비중은 늘어가는 추세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매년 40억원의 부담금을 내기보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은행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yul115@metrosoul.co.kr

##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음 9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다. 48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60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72년생 너와 내가 좋은 일이 곧 올 것이다. 84년생 늦지 않았으니 파이팅.



37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려도 걱정이다. 49년생 붉은 색은 오늘은 입지말자. 61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73년생 남의 것을 꺾다가 손실로 이어진다. 85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38년생 처음이 중요하다 끝맺음도 잘해야 한다. 50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62년생 생존이라는 화두에서 명상해보라. 74년생 인공지능과 사이버 시대에도 사람이 해내야 할 일이. 86년생 저녁에 기도하니 아침이 보이더라.



39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51년생 백문불어일건(百聞不如一見)이니 현지답사는 필수. 63년생 숫자 5가 행운을. 75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사람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87년생 세상이 별빛처럼 아름답다.



40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지내라. 52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줄 아는 사람. 64년생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76년생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랑도 변하는 듯. 88년생 반려야가들을 키우려면 병원에도 데려가야만.



41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53년생 갈등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하도록. 65년생 대화 시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77년생 높은 시련처럼 보이던 것이 뜻밖의 횡재가. 89년생 생가는 현실 몸은 구만리.



42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54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에 매사에 자중하라. 66년생 보름달 같은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날. 78년생 병이 왔으니 오후에는 약도 주어지지 않길 바란다. 90년생 기복과도 서로 다른 시각.



43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55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매우 중요. 67년생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고 재물이 들어온다. 7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력서가 통과될 것. 91년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맑아진다.



44년생 히로아레라도 자신의 역량이다. 56년생 뒤는 놓여나니 놓이느니 쉬지 말고 노력. 6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 본들 무슨 소용. 80년생 힘든 일은 결국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92년생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푼다.



45년생 병법에 있는 삼십육계(三十六計)를 생각해 연구. 57년생 남의 것에 미련 버려라. 69년생 광기와 천재는 성공으로만 측정. 81년생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 과학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93년생 추억은 항상 남는 것.



46년생 복권에 당첨하려면 복권을 사야만. 58년생 오늘을 무슨 일든 참여. 70년생 말 못하는 동물 학대는 하지 말아야. 82년생 일이 어긋나도 원망 갖기보다는 나쁜 못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94년생 골백번 생각해두 배우자의 바람에 의문.



47년생 외출할 때 자전거 오토바이 이륜차를 조심. 5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71년생 길흉화복은 평소의 공부와 적선공덕으로. 83년생 밀물 이 있으면 다음에 썰물이니 때가 있다. 95년생 뒤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발전.



# 김상희의四季 생전예수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가 있다. 백종과 백종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들어봤겠지만 생전예수재는 자신을 위해 살아있을 때 사십구제나 천도제를 미리 행한다는 의미다. 나 죽어서의 일은 모르는지라 예로부터 윤달이 든 때에 스스로 본인의 업식을 미리 닦고자 하는 뜻이 깊다.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라고보다는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불가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전통이라고 본다. 워낙 그 뜻이 좋으므로 예수재 전통은 고려시대 때부터 널리 행해졌었다.

관정경(灌頂經)이나 정본수능엄경 등 여러 경전에서 그 기록과 방법이 보인다. 예수재의 유래는 부처님 당시 신실한 불자였던 인도의 마가다국 범비사라 왕으로부터 연유했다고 본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왕이 한밤중에 푸른 옷을 입은 저승사자 1명과 누런 옷을 입은 저승사자 9명에게 인도되어 저승의 지옥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에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 불법을 넓게 펼칠 수 있겠냐고 물으니 저승사자들은 "당신은 15세에 왕이 되어 25년 동안 불법을 널리 행하고 여러 성대한 재를 올렸지만 명부(冥府)의 시왕(十王)과 여러 권속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아 잡혀온 것이니 내 이제 삼대명왕과 저승 관리나 권속의 이름을 알려 줄 터이니 다시 살아나거든 널리 이름을 알려 공양케 해주시오"라고 했다.

범비사라왕은 다시 살아났고 그후 명단에 있는 각각의 분들에게 예배 공양하면서 59차례의 예주시왕재를 올리며 중생들에게도 권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후에 대승불교가 성립된 이후에 지장 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생성된 얘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범비사라왕은 천수를 누리기도 솔전에 태어나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인의 지위인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명도전(冥道傳)에 전하고 있지만 다른 기록도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2	6	8	3	1				
		9	7						
	4		1	3	2				
5	9								
	1							5	
								8	6
		9	8	6				5	
				9	4				
4	6	8	1		5				2

### 문제풀이: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도그램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 할인도서

6	2	1	9	8	1	8	9	7
8	9	8	7	6	2	2	9	1
7	1	9	7	9	8	6	8	1
9	8	1	6	9	8	2	7	2
8	9	6	2	2	7	9	1	8
2	2	7	1	8	9	8	6	9
2	6	2	8	1	9	7	8	9
9	7	9	8	2	7	8	9	2
2	8	9	1	2	6	8	9	7
8	1	6	7	9	8	2	2	1
7	9	2	6	8	2	9	1	8
9	2	8	1	9	7	8	9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2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이모저모

전통 '파시' 통해, 목포항 과거·미래 잇는다

나주시

'2024 영산강축제' 개막

전남 나주시가 올가을 남도의 젓줄 '영산강'을 무대로 준비한 역대급 통합축제가 9일 오후 화려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5일간 국가 정원 지정목표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는 나주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4 나주 영산강 통합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온 가족이 다시 찾고 싶은 정원'을 테마로 기존 정적인 정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춘 명소로 조성되고 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도

'제 63회 문화상' 7개 부문 대상

경상남도는 '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 7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경상남도 문화상은 경남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373명을 배출한 문화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올해 문화상 수상자에는 ▲이성모 김달진 문학관장 ▲주강홍 시인 ▲박용덕 사진작가 ▲고능석 극단현장대표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 ▲안휘준 통영시 체육회장 ▲장종도 경남연극협회 사무처장이 각각 선정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신안군

'섬 새우젓축제' 18일부터 개막

전남 신안군의 섬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신안군 지도읍 신안갯길타운 일원에서 섬 새우젓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장의 황금 향신료'라 불리는 새우젓을 주제로 하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신안의 청정해역에서 잡은 섬 새우젓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신안 천일염으로 담가 육질이 단단하고 감칠맛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 뇌세포 성장 및 인지 능력 향상, 염증질환 개선과 특히 소화기능 및 간 기능 개선 등에 좋은 음식이라 알려져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영양군

"능이·송이버섯 맛 보세요~"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2~13일 양일간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수비 능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수비 능이축제'는 영양의 청정 자연에서 재배되는 능이버섯, 송이버섯을 판매하는 행사로 22년 수비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위원회를 발족해 시작되었다.

축제기간 중에는 능이라면 나눔행사, 맥주 빨리 마시기 등 참여행사, DJ공연, 축하공연 등 볼거리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능이 판매 뿐만 아니라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삼학도 일원서 '목포항구축제' 올해 18회째, 이달 11~13일 개최 전통 파시·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바다콘서트·난영가요제도 열려

전남 목포시는 '2024 목포항구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목포항구축제는 2024~2025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오감만족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항구축제에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축제의 주요 주제로 선정해 목포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낼 예정이다.



목포항구축제 포스터.

행사 첫날인 11일 오후 본격적인 막이 오를 항구축제는 글로벌 퍼레이드와 함께 만선 배가 입항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연출한다. 이를 통해 목

포항의 번영과 만선을 기원하고, 항구에서 시작되는 목포의 밝은 미래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전통 파시를 더욱 돋보이도록 구성된 올해 축제장은 목포항을 따라 세대별로 파시존(2060), 항구존(7080), 청년존, 현대존 등 4개 공간으로 나눠 진행되며,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글로벌 파시'를 연출하게 된다.

'파시존'에서는 전통파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파시 장터에서 경매받은 수산물을 직접 구워 먹는 구이터와 어물전 수라간 등이 운영된다. '항구존'은 목포의 근대역사와 70~80년대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항구 버스킹, 항구도야호(건맥체험), 청년창업부스 및 음식부스로 꾸며진다. '현대존'과 '청년존'에서는 낭만한끼, 청년항구불, 체험부스, 선창어린이놀이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형 공

간으로 운영해 목포항의 낭만과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제철 수산물을 목포만의 맛과 멋으로 즐길 수 있도록 목포 미식페스타가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퐁퐁있는 밥상', '3인 3색 스페셜 쿡' 등 입맛을 돋우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2024 목포항구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공연 ▲바다콘서트 ▲목포항구음악회 ▲난영가요제가 축제기간 매일 오후 8시부터 진행돼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파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본래 취지는 부각시키면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젊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metroseoul.co.kr

경북,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도

산업부 주관 4개 공모사업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4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국비 232억원을 확보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이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 선정으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특성, 성능·신뢰성 등 시험평가체계를 갖춘 센터가 구축돼 기술개발과 기업의 시장진출을 돕는다.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어서 소재나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가운데 센터가 구축되면 국내의 시험인증 획득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이뤄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입주기업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홍보관.

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R&D)' 사업에도 3개 과제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82억원을 확보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대구, 지방시대 선도 위한 협력·전략 논의

영남권 5개 시·도, '미래포럼' 개최

대구는 지난 8일 영남권 5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회장 홍준표 대구시장)'와 '2024 영남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 발족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 ▲수도권 외 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재난 예방을 위

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국가 차원의 녹지 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 등이다. 이는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세계 감면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외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개발을 제안했으며, 규제 특례 등 지원 근거 마련으로 특구의 안정적 발전과 기업 성장에 공동 대응할 것을 건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의 쇠락과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비수도권 간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일극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데 영남권 5개 시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부산, 공공장소·건물에 순우리말 확대

'578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

부산시는 훈민정음 반포 578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부산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단체, 교육계 인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한글날을 기념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축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경축사 ▲기념 합창

▲한글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약 40분간 진행되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 세상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려면 한글을 지키고 가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시는 공공장소와 공공건물의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해 부산을 더 아름답고 정겨운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 "'골목축제'서 가을추억 남겨요"

연제·사하·남구 3개 상권서 행사

부산시는 10~17일 부산 시내 3개 골목에서 다채로운 가을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이 주도해 고객을 유입하고 명소상권을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이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가 열리는 3개의 상권은 ▲연제구 연동 골목마켓 ▲사하구

다비치 소망페스티벌 ▲남구 문문마켓 등이며, 각 상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사하구 다대포 동쪽 해안에 위치한 '다비치 골목상권'에서는 12일 제3회 다비치 소망페스티벌이 열린다.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에 위치한 '문문상회 골목상권'에서는 17일 '마을과 어우러져 너와 내가 함께 빛나는 하루, 문문마켓' 행사가 열린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아랍국, 이란과 비밀 협상... "모든 전선 휴전이 목표" /사진 뉴시스 ▲카타르외무, 레바논 방문 "이스라엘 공격강화에 레바논 지원할 것"

▲이라크 시아파 저항군, 이스라엘 북부에 무인기 공격했다 주장 ▲"핵합의 탈퇴, 중동 분쟁 불렀나"... 미서 '트럼프 책임론' 제기



▲러,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유도탄 공습... 2명 사망·30여명 부상 /사진 뉴시스 ▲중국 증시 하락 출발... 상하이 지수 1.79% ↓



14개국서  
파리바게뜨 맛본다  
글로벌 속도전  
나



Life

게임산업 진흥법  
헌법소원 청구  
역대 최다인원  
L2



# 정비사업 주민 동의 50%로 완화 서울시, 강남권 재개발 속도낸다

### 강남 9곳 조합장·주민과 의견 나눠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제도 개선 제도 활용해 신속한 진행 지원 계획

서울시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 주민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5개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서울시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 주민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

위해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와 제도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

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공공시설 할인 등 임산부 혜택 확대

### 수영장, 미술관 등 이용료 감면 시 주요 문화행사서 '바로입장'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잠실수영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설치돼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해진다.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임산부 배지나 산모수첩을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서울지갑' 앱에서 임산부 앱카드만 내려받으면 돼 인증도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임산부 지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 개최 문화행사 우선 입장(임산부 패스트트

랙) ▲민원실 임산부 우선창구 설치 ▲임산부 앱카드를 통한 간편 인증이다. 우선, 이달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의 개인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이 제공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 행사에 임산부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해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민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향후 한강공원, 공원요금, 캠핑장 등 임산부 앱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전체 초등학교사 대상 'AI 연수' 실시

###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직무연수 이해형·체험형 등 60여개 프로그램 김창욱 교수, 궤도 등 명사 특강도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조재현)은 서울관내 초등교원 2만8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만드는 미래교실' AI·디지털 직무연수

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수학습 변화에 초점을 맞춰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4가지 영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이해형 ▲AI·디지털 체험형 ▲AI·디지털 교수학습-평가형 ▲AI·디지털 업무관리형 등의 영역에서 원격, 집합, 명사특강, 기관방문 등 60여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학교(동북권), 건국대학

교(동남권), 전경련회관(서남권), 위드스페이스(서북권), 스페이스슈어 서울중부센터(중부권), 엘리에나(강남권) 등 6개의 거점에서 실시된다.

또한 구글 등 AI·디지털 관련 기업 탐방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창욱 교수(소통전문가), 궤도(유튜버) 등의 명사특강도 함께 진행한다.

연수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연수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방 프로그램과 명사 특강 등 특별프로그램은 공문 및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인하대, 강원대와 반도체 인재 양성 본격화

###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개소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최근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시설, 장비

구축, 기업 현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 국가사업이다. 인하대는 강원대와 연합해 동반성장형(수도권·비수도권) 분야에 참여해 선정됐다.

인하대는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의 문을 열면서 칩렛 반도체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강원대와 함께하는 동반성장형 사업으로 지산학연 인재 양성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초청 강연에는 반도체 소자공정, 회로설계, 메모리, 패키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진 기자

## 부르면 오는 '똑버스' 수원 평동지역 운행

### 승객에 맞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정해진 노선, 운행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수원 평동 지역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평동지역에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고, 8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1인승 5대, 7인승 5대로 운행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다.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

간으로 승객들 수요에 맞춘 최적의 이동 경로를 따라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를 호출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똑버스를 기준으로 운행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승객에게 안내한다.

같은 시간대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예약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을 받는다.

/수원(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6 | 해질 / 18:02

10월 10일 (木)  
음력 : 9월 8일

수도권 날씨  
15~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2/22, 동두천 12/22, 가평 11/22, 파주 13/21, 서울 15/22, 양평 12/22, 인천 15/22, 수원 15/21, 용인 15/21, 평택 13/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샌디에이고·메츠, NLCS 진출에 1승 남겨...다저스는 '벼랑 끝'  
▲메츠, NLDS 3차전서 필라델피아에 7-2 승리...NLCS에 1승 남겨 /사진 뉴시스

▲손흥민 빠진 흥명보호 축구대표팀 '임시 주장'에 김민재  
▲현대건설, 정관장 꺾고 통산 5번째 컵대회 우승...MVP 모마



▲LPGA투어 '가을 아시안 스윙' 돌입...10일 뷰익 상하이 개막 /사진 뉴시스  
▲김주형 캐디 "프레지던트컵서 미국 선수가 세 차례나 욕"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 SKT Enterprise



## AI 기술 없이도 AI 회사가 될 수 있다

투자 보고서 작성부터 재무, 마케팅, 고객 서비스, HR까지 다양한 업무를 도와주는 SKT Enterprise AI

금융, 제조업, 공공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SKT Enterprise는 AI로 대한민국 산업을 새롭게 키웁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SKT Enterprise AI는 누구나 쉽게 AI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Enterprise AI Marketplace와 기업의 다양한 분야와 니즈에 따라 Custom 구축이 가능한 맞춤형 AI 기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SKT 엔터프라이즈](#) 를 검색해 보세요